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전북 농관원, 내달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서 변경 가능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전북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

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인적사항, 농지, 품목, 면적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전북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전화, 팩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문자로 신청하거나, 콜센터(☎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편, 농촌공간계획의 도입, 뉴딜사업의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직(부)으로 '농어촌개발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뉴딜 확대 대응

농어촌공 전북본부, 지역개발 전담부서 '농어촌개발부' 신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편, 농촌공간계획의 도입, 뉴딜사업의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직(부)으로 '농어촌개발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농어촌개발부는 2센터 5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KRC전북지역개발센터는 농촌공간계획, 뉴딜사업 등 새로운 농촌개발 정책을 선도하고,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분야 중간지원조직으로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과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 조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및 거버넌스 활동 강화를 위해 역량강화팀, 전북지역 특색에 맞는 건축기회를 위한 건축팀 등 농어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를 갖추게 됐다.

윤성은 농어촌개발부장은 "지원 모두가 원년멤버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협은 지난 5일 전주농협 전미동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F94 마스크 약 33만 장을 전 조합원에게 1인당 50매씩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설 명절 조합원 건강 기원'

전주농협, 전체 농업인 조합원에 KF94 마스크 공급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지난 5일 전주농협 전미동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F94 마스크 약 33만 장을 전 조합원에게 1인당 50매씩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임인규 조합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느 설명절과는 달리 외지에서 찾아 온 가족에게도 거리두기 1인당 50매씩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임인규 조합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느 설명절과는 달리 외지에서 찾아 온 가족에게도 거리두기 1인당 50매씩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의 건강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농민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농협은 전국 최초로 조합원에게 ▲농사연금 지급 ▲농민훈장 수여 ▲조합원 건강검진 ▲독감예방접종 ▲장학금 지급 ▲소외계층 김장김치 나눔 등 농민의 권익신장과 지역 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무주 산림조합 '경영 최우수' 선정

산림청장 표창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박철수)이 지난 4일 중앙회 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정기표창 시상식에서 전국 142개 조합들 중 경영최우수조합으로 선정돼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2020년 상호금융종합업적평가에서도 그룹별 연간실적기준 1위 조합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같은 성과는 무주군산림조합이 사유림 경영지도를 비롯한 조합원가입, 출자금조성, 재무구조와 신용, 일반, 산림사업 등 종합적인 전반적인 업무에서 탁월했다는 결과로, 이는 곧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박철수 조합장은 "이번 기관표창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 직원과 조합원들의 관심과 신뢰로 일궈낸 산물"이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일의 번창하는 무주군산림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 오전 11시에 무주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는 대학생 6명, 중·고등학생 6명에 대한 장학금(총 900만원)은 전달식이 있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페이퍼는 지난 5일, 지난해 11월부터 전사적으로 진행한 운영 혁신 활동인 'TOP21' 프로젝트의 2단계 돌입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운영 혁신 'TOP21' 2단계 돌입

전주페이퍼, 발대식 갖고 본격 실행 개시 아이디어 적용으로 최대 성과 달성 목표

전주페이퍼(대표이사 사장 장만천)는 지난 5일, 지난해 11월부터 전사적으로 진행한 운영 혁신 활동인 'TOP21(Total Operational Performance 2021)' 프로젝트의 2단계 돌입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TOP21'은 전주페이퍼의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과 골판지 원지 생산 역량 강화를 주요 골자로 시행된 전사적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최근 박스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 할 정도로 '박스 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전주페이퍼의 골판지 사업 확대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페이퍼는 1단계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도출한 1천여 개의 아이디어를 모두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기준으로 실행 단계인 2단계에 적용할 아이디어들을 선별해냈다. 실행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와 추가 아이디어 도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고 힘을 모아 목표 수립부터 아이디어 도출, 실행 및 검증 단계까지 완수하는 프로젝트이기 그 의미가 크다. 전주페이퍼는 모든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큰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주페이퍼는 골판지 원지, 포장용지, 신문용지 등의 사업으로 종이 부문의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꾸준한 재생용지 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이번 'TOP21'은 전주페이퍼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전 임·직원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1단계에서 이루어져 성공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며 "분명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철저한 모니터링과 과감한 실행을 통해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전주사랑상품권 '새해맞이 경품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전주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네지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새해맞이 전주사랑상품권 경품 이벤트'를 4월 11일까지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전주사랑상품권 체크카드를 이벤트 기간 동안 건당 10만 원 이상 사용 시(선결제 포함) 추첨을 통해 LG스타일러와 전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 인센티브 4만점을 지급한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이벤트는 매주 LG스타일러 3명, 카드 충전 인센티브 4만점 100명을 추첨하며, 10주에 걸쳐 총 1,030명에게 경품 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벤트는 자동으로 응모되며, 건별 10만 원 이상 이용할 때마다 추첨권 1회가 부여된다.

전북은행 카드사업부 관계자는 "2월 28일까지 전주사랑상품권 체크카드의 충전 인센티브를 10% 추가 지급함에 따라 캐시백 10%를 포함해 총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북전주농협, 출자증대 '최우수상' 수상

전주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5일 '2020년 출자증대 최우수농협'에 선정된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을 방문해 시상하고 임직원과 조합원을 격려했다.

북전주농협은 지난해 32억 원의 출자 증대를 통해 전국 147개 농·축협이 속한 그룹 내에서 최우수농협으로 선정됐다. 출자금은 자기자본의 주요 구성항목으로 경기침체, 손익감소 및 각종 리스크 발생에 따른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도 적정 수준 이상의 자본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재호 본부장은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실익사업을 확대하고, 경제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출자증대에 함께 해주신 임직원과 조합원께 축하를 전한다"며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코로나19 속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협을 믿고 적극 출자해 주신 조합원들께 감사하다"며 "더욱 건실한 농협을 만들어 조합원들께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출자배당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생진원, 올해도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 추진

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전라북도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전북 농식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2021년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는 이번 사업은 창업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의 아이템 사업화를 촉진하고, 초기 창업기업에는 자금 부족으로 인한 도산위기(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관련 전주지역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향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농식품 관련 예비창업자 및 5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자)당 맞춤형(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홍보 등) 지원을 최대 2

천만 원 규모로 지원 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비대면 수출 플랫폼 성과확대 정책의 일환인 해외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홈쇼핑 입점지원 등 제품광고 분야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김동수 원장은 "전년도 지원기업의 매출 성장 등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지원 사업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체 진단, 컨설팅, 연계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시장경쟁력 향상 및 생존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fire.kr) 공고란을 참조해 3월 5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진흥원 창업보육팀(063-210-6561)으로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도, 디지털 전환 창업기업에 청년인건비 지원

디지털 뉴딜에 맞춘 지역 청년 채용시 월 200만원

전북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전환 도내 중소기업과 신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분야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북 청년 디지털 스위치 온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춰 지역 청년을 채용하면 연말까지 월 200만원의 인건비(기업자부담 10% 포함)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청년이 디지털 뉴딜 정책 핵심인재로 거듭나도록 맞춤형 직무교육, 전문교육 지원과 함께 건강검진 등의 복지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모집기간은 8일부터 23일까지이며, 대상은 비대면 전환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디지털 분야 창

업기업(7년 이내)이다.

비대면 전환의 예로는 제조업, 농업 등에서 모바일앱 구축, 온라인 판매 등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이후에는 업체별 특성과 인재상에 맞는 청년근로자 5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은 우리 기업이 언젠가 준비해야 할 미래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일찍 맞이하게 됐지만, 도내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문의전화 711-2102, 21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중기청, 해외규격 인증 획득 비용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케이(K)-방역/바이오업종의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4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 신청·접수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김윤상 기자